

‘경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11월 24일(금) 오전 11시
- 장소: 경주시청 본관 앞
- 주최: 기자회견문 연명 단체 참조

[기자회견문]

경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제정하라!

오늘은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던 역사적인 2023년 11월 24일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환경부의 시대 역행적 자원순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경주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막대, 비닐봉지, 우산 비닐 등의 매장 내 사용을 24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주시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 왔다고 봅니다. 환경부의 잘못된 정책 후퇴만 아니었다면 경주시는 오늘부터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시에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인구 24만의 작은 도시 경주에 해마다 1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천만의 관광객이 하루 또는 며칠씩 머무르며 쏟아내는 1회용품 쓰레기에 경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황리단길 일대는 경주시가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쓰레기를 치우고 있으나,

아름다워야 할 유서 깊은 역사·문화 도시의 거리는 온통 플라스틱 1회용품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포기해도 경주시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경주시가 후원하는 ‘탄소중립 실천 선도 도시 전략수립 심포지엄’이 며칠 후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전략보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경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 제정과 시행은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을 때 먼저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고 1회용품 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 시내와 황리단길 상권을 묶어서 1회용품 사용 규제 특구로 지정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주시의 관공서와 경주시가 주관 및 후원하는 모든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바 있으나, 코로나를 핑계로 유야무야되더니 어느덧 경주시의 관공서에서 1회용품 사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경주시는 ‘경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조례’를 제정하라.

하나. 경주시는 시내 및 황리단길 상권을 1회용품 규제 특구로 지정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범 시행하라.

하나. 경주시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라.

2023년 11월 24일

경주겨레하나·경주시민총회·경주아이쿱생협·경주여성노동자회·경주학부모연대·경주환경운동연합·구름달공동체·놀이와답사연구소·민주노총경주지부·숲을·천도교한울연대·한살림경주·노동당경주지역위원회·녹색당경북도당(준)·민주당경주지역위원회·진보당경주시위원회

□ 담당: 이상홍 010-4660-1409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